

나무 심기



팔레파투 엘, 9세, 사모아 투아마사카

Talofa[탈로파]! 안녕하세요!

최근에 저희 초등학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 봉사를 했어요. 저는 사는 곳이 교회와 멀어서 활동에 못 갈 뻔했지만, 정말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지도자분들이 차편을 마련해 주셨어요.

그렇게 도착한 봉사 현장은 진흙투성이였고, 좁고, 습했어요.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! 우리는 각자 나무를 한 그루씩 받았고,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나무 심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 주셨어요.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는 나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배웠어요.

저는 나무가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와 약재, 목재를 주고,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어요.

저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! 그리고 여러분도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.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, 그리고 이 일에서 제가 배운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. ●

“지구와 우리의 자연환경을 돌보는 것은 ..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책임입니다.”

제럴드 코세 감독, “지상의 청지기 부름”, 『리아호나』, 2022년 11월호, 58쪽.

알고 있었나요?

커다란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최대 4명분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!